

# '전주세계소리축제' 여름 축제로 변신

8월 14~18일 개최... 차별성·독보성 확보 위해 새로운 변화 시도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여름에 열린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행사를 오는 8월 14~18일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매년 9~10월 개최해 오던 소리축제가 올해는 8월로 축제 일정을 앞당기면서 여름 축제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르면 이를 통해 소리축제가 가진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2021년부터 공연예술제로 변화를 추구해 온 소리축제는 전통예술기반의 공연작품은 극장에서, 대중친화적 공연은 야외극장에서 펼쳐며 예술성과 축제성을 갖춘 여름축제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의 본격적인 축제 및 공연 시즌에 앞

서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예술가와 작품을 사전 확보하고, 국내외 기관 협력의 폭도 확장해 축제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8월은 방학과 휴가 시즌으로 그간 학기 중 참여가 어려웠던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을 불러모으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미래세대 예술가인 전국의 국악·음악 전공 중고등·대학생들도 방학을 맞아 참여가 가능하며, 축제는 이들을 차세대 주인공으로 참여시키면서 성장의 기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리축제 본연의 미션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소리축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실

내 공연작품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야외 공연은 도민들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명나는 축제판을 벌이고자 한다. 야외 공연에서는 폭염 대비 및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장소 특정 프로그램을 배치해 여름 축제의 묘미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가을 축제 출렁현상을 탈피해 보다 차별화 된 소리축제로 학생과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하고, 예술인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으로 소리축제가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전통문화와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 명성을 함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전통 민속놀이 체험 모습

## 온 가족 즐기는 설맞이 특별행사 '풍성'

한국전통문화전당, 9·11일 양일간 전통놀이·이벤트 등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9일과 11일 양일간 설맞이 특별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5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당은 물론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우리놀이터 마루달, 흑석골에 위치한 전주천년한지관 등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서 이뤄진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쌀강정 만들기 △전통놀이(웃점보기, 종지웃놀이) △한지공예(가오리안, 한지소품함) △수공예(압화액자 소품, 사각한지 서랍장) 등이 펼쳐진다. 특히 9일에는 전통문화콘텐츠 창작소 KTCC:ON에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 전당을 찾는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한다. 또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포토존 사진 촬영 인화 이벤트와, 한지엽서를 증정하는 해

시대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는 웃점보기, 종지웃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전통한지 제조, 한지 연 만들기 등이 이뤄진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당 누리집(www.ktc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갑진년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설맞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연휴기간 온 가족이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조선시대 임실현 운수지 을묘본 최초본 임실군 기탁

임실군청 퇴직 공무원 오수면 김진영씨, 임실군 역사문화 탐구 중 2023년 7월 입수 기탁

조선시대 임실현 사찬읍지 중 가장 오래된 운수지(雲水志) 을묘본(1675) 최초본이 임실군에 기탁됐다. 기탁지는 현재 오수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진영(64)씨로 지난 2015년 임실군 공무원을 명예퇴직하고 평소 좋아하는 임실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해 왔다. 2023년 7월 운수지를 입수한 후 이번에 임실군에 기탁하게 됐다. 운수지는 조선시대 임실현 사찬읍지(私撰邑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1675년, 1730년, 1904년에 편찬됐다. 지난 1904년에 간행된 운수지에 신계정 현감의 운수지 발문이 있었고, 범례의 여러 곳에 구분(舊本)을 열람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 있어서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수지는 1675년에 신계정 임실현감이 고을 사람 한필상, 이시연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32개 항목, 96면, 4만8,000자에 이르는 자료이다.



운수지 을묘본 최초본

특히, 지난 2017년 12월 발견된 1730년 운수지, 2023년 10월 기탁된 1798년 필사본 운수지 등과 더불어 17~18세기 임실현의 변화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수지 을묘본은 전라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선시대 사찬읍지 중에서 순천부읍지 승평지(1618)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사찬읍지이고,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찬읍지이다. 17세기 편찬된 전라도 읍지인 승평지(1618), 운수지(1675), 용성지(1699) 등과 더불어 17세기 전라도 사찬읍지의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심민 군수는 "운수지가 보존 처리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반관광 임실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립익산박물관, 8~12일(설 당일 제외) 문화행사·특별전 진행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율림)은 설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2일(설 당일 제외)까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체험키트 배부행사, 소원 엽서 적기 체험, 전통 민속놀이, 특별전 연계 교육 및 관람 인증사진 이벤트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대면 체험용으로 제공되는 '고군산군도 블록 만들기 키트'는 현재 진행중인 특별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를 주제로 한 것으로, 가정에서 블록을 조립하여 선유도에 위치한 '망주봉'을 형상화할 수 있다. 체험키트는 오는 2일부터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가능하며, 신청인원은 170명이다.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소원 엽서 적기 체험, 특별전 연계 교육 '군산군도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별전 및 어린이박물관 관람 인증사진 이벤트는 현장에서 진행된다. 또한, 앞마당에서는 투호놀이, 오재미 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자

유롭게 즐길 수 있다. 특별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전시실에 숨겨진 '용무늬 거울'을 찾으면 일러스트 유리컵을 증정할 예정이다. 설 당일(2.10.)을 제외하고 본관 및 어린이박물관은 정상 운영되며, 어린이박물관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시, 더욱 편리하게 관람 가능하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다"며 "비록사지에 위치한 국립익산박물관에 오셔서 문화행사도 참여하고 미륵사지도 둘러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운영 중인 특별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박정렬 화백 초대전 '영원한 토지' 개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는 '영원한 토지의 숨고함'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 토지화백 박정렬 화가의 미술작품을 오는 3월 15일까지 전시한다. 전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

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로 문의하면 된다. 박 작가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느낀 영원한 자연의 순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존재하는 농지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 속 토지는 직접 그 땅의



흙으로 물감을 만들어 사용했다. 관람 시 토지에 집중해 그림을 감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화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